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3, 1197-1219
http://dx.doi.org/10.23844/kjcp.2024.08.36.3.1197

OPEN ACCESS

신혼기 부부의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강 예 나　　장 재 홍†
서강대학교 / 석사 졸업　　서강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신혼기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57쌍의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APIMeM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편과 아내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상대방효과는 아내만 정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매개하였지만, 아내의 자기효과 경로에서는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만 매개하였다. 넷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방효과에서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만 매개하였고, 아내의 상대방효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모두 매개하였다. 이는 결혼 만족을 위해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침묵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은 본인과 아내 모두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아내는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신혼기 부부, 자기침묵, 결혼만족도, 지각된 배우자 지지,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매개모형(APIMeM),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

* 본 연구는 강예나(2023)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혼기 부부의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장재홍,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Tel : 02-705-8336, E-mail : jangjh@sogang.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신혼기는 성장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부부 두 사람의 조정과 협력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인 동시에 만족도와 기대감만큼 갈등이 유발될 잠재성도 매우 높은 시기이다(오현주 등, 2012). 부부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관계는 안정적이고 결혼에 만족하게 되지만,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할 경우 이혼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김희진, 2005). 신혼기의 경우 통계청(2023)에서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3년 미만(오현주 등, 2013; 오현주 등, 2012) 또는 5년 미만(안향선, 서미아, 2019; 임하영 등, 2014; 정민선, 최연실, 2023)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2년 이혼건수는 9만 3천건,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의 경우 0-4년이 18.6%로 신혼기의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0대 이혼 사유 1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성격 차이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신혼기는 임신 및 출산 계획, 자녀 출생에 대한 대비와 역할 분담, 새로운 관계 형성, 가족의 규칙 정립 등을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많은 시기로(임하영 등, 2014) 결혼 초기 부부 간 차이를 이해하고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중요하며 실패할 경우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정민선, 최연실, 2023). 이처럼 신혼기의 결혼 안정성이 가장 낮지만 결혼관계만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결혼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거나(김정희, 2019; 신현정, 홍혜영, 2018) 중년기 부부(이연정, 최은실, 2022; 차근영 등, 2017; 한영애, 양혜정, 2020; 홍지희, 김보영, 2021)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혼기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혼기는 특히 부부 양자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경험연구들(김향순 등, 2014; 이지은, 윤호균, 2007)에 따르면 부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결혼 불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현주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신혼기의 남편과 아내의 부정적인 의사소통패턴은 본인 결혼만족도 뿐 아니라 상대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편이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경향을 보일 때 아내의 부정적 의사소통을 매개로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 만족이 낮아졌다. 따라서 신혼기 부부가 균형감 있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회피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오현주 등,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기침묵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침묵(Self-Silencing)이란 상대방과의 갈등을 줄이고 관계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Jack, 1991).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자기효과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김지영, 2012; 손성은, 박원주, 2021; 이은희, 2012; Uebelacker et al., 2003)에 따르면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침묵을 매개변인으로 다루었던 연구들에서 자기침묵은 거부민감성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손성은, 박원주, 2021), 대상관계 수준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김지영, 2012), 부부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Whiffen et al., 2007)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침묵이 결혼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자

기침묵과 연관이 있는 개인의 취약성 변인과 상황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기침묵의 영향을 다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기침묵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관계 만족도 즉 자기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 파트너가 자기침묵이 높다면 상대방 또한 무기력이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부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역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변인 간 매개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안향선, 서미아,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편 혹은 아내의 자기 침묵이 자신의 결혼 만족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 만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자기침묵 현상을 최초로 제안했던 Jack(1991)은 성인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여성들의 자기침묵하는 행동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몇몇 여성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인지적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자존감과 자신의 상실(Feeling of a loss of self)로 이어진다는 것이다(Jack, 1991). 그런데 후속연구들에서 자기침묵의 과정이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Cramer & Thoms, 2003). Duarte과 Thompon(1999)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자기침묵과 우울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침묵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자기침묵하는 동기는 다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약한 것이라 간주하며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의해 관계에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관계를 불평등하다고 느끼거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 자기침묵 할 수 있다(김지영, 2012; Duarte & Thompson, 1999; Gratch et al., 1995; Ussher & Perz, 2010).

자기침묵은 하나의 성격 특성이기 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자기 평가에 기저하는 인지도식과 행동 유형이다(김지영, 2012). 자기침묵이 높은 경우 본인의 판단이나 평가보다는 타인이나 외부 환경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여 결국 내적으로는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Jack & Dill, 1992). 그리고 이로 인해 관계에서 깊은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무기력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Joiner et al., 1999). 자기침묵의 대인관계 영향에 대한 경험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침묵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맞서기, 멀어지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고(김선하, 2019), 관계 내에서 갈등이 더 많으며(Carrillo, 2022), 친밀감과 자기감을 상실하게 만들어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울과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현아, 김혜정, 2021; Besse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자기침묵이 자기와 상대방 파트너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의 필요나 욕구에 남편과 아내가 반응하는 것이며 사회적지지 중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자 서로에 대한 신뢰로 도움이나 배려 등을 제공하는 행동이다(Cutrona, 1996). 배우자는 애착관계 상의 인물들 중 가장 가까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의 안정에 밀접하게 관련된다(구성희, 채규만, 2013). Cutrona(1996)는 배우자 지지가 부부관계의 질과 관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기술하였다. 첫째,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배우자의 지지는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정서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지지는 우울증과 관계에 해를 끼치는 자기 연민, 짜증, 의욕 상실 등의 행동을 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부부 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지지 행동은 갈등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배우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정서적 친밀감은 지지적 의사소통에 의해 촉진된다고 보았다.

Wethington과 Kesseler(1986)는 지각된 지지(perceived suppor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사건에 대한 적응을 예측함에 있어 지각된 지지는 실제 받은 지지(received support)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밝혀냈다.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배우자 행동에 대하여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것이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정문경, 김병석, 2014). 배우자 지지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로 나눌 수 있는데(김시연, 서영석, 2010) 정보적 지지는 정보나 도움의 자원을 제공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며, 정서적 지지는 보살핌과 애정을 주고 받는 행동이고, 존중감 지지는 상대방의 가치, 행동 및 감정 자체를 존중하고 가치롭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장춘미, 2001).

기존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은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시연, 서영석, 2008; 윤미혜, 신희천, 2009; 전민선, 2020; 정문경, 김병석, 2014). 그리고 부부 쌍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아내와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는 본인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결혼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시연, 서영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 즉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이 높았으며, 아내가 남편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이 높았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상대방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양서연과 최한나(2020)의 연구에서는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지지가 남편의 결혼만족과 관련이 있었으나,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지지는 아내의 결혼만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시연과 서영석(2010), 김진아(2016), 그리고 김효민(2010)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대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해보면 자신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는 본인의 결혼만족에 관련성이 있으나, 상대방효과는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를 탐구한 국내외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구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연구, 자기침묵과 유사한 단절 및 거절도식 그리고 반대 의미인 자기개방과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를 검토한 기존연구를 토대로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친구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

면, Thomas와 Bowker(2015)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친구 관계에서 자기침묵이 높았으며 이는 본인이 친구 관계에서 덜 지지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쌍 연구를 진행한 Bowker 등(2023)의 연구에서 자기침묵은 수줍음과 친구 관계 내 사회적 지지 간을 매개하였는데, 수줍음이 높을수록 자기침묵이 높았고 이는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즉 친구관계에서 자기침묵이 높은 경우 자신도 친구 관계에서 덜 지지받는다고 지각하며, 상대방도 본인의 자기침묵에 영향을 받아 덜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기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덜 반응적일 수 있고 감정적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침묵과 유사한 개념인 단절과 거절 도식 그리고 상반된 의미인 자기개방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 관계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단절과 거절도식은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단절과 거절도식이 높을수록 자신이 배우자의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며, 그 상대방도 배우자의 지지가 적다고 지각한 것이다(양서연, 최한나, 2020). 또한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개방의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에서, 자기개방이 높을수록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높았으며 이는 부부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졌다(윤인지, 2016). 이는 부부 간 긍정적, 부정적 사건 모두를 개방하는 것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윤미혜, 신희천, 2009).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침묵은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 지지에 대한 지각 수준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침묵하는 사람은 관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보다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우선적으로 생각(Jack, 1991)하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계 내 균형에 있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외로움(김예진, 서수균, 2022)을 느낄 수 있겠다. Gross와 John(2003)의 연구에서도 관계에서 감정을 억제하는 경우 친밀한 관계를 피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약해졌다. 이러한 경험은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부부관계에서 관계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본인보다 배우자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감정과 욕구를 회피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때 내적으로는 분노를 경험하거나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자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 간 관계는 분절되어 연구되어 세 변인 간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없었다. 또한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자기침묵하는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에 집중하고 있어(김지영, 2012; 손성은, 박원주, 2021) 상호역동적인 부부관계를 고려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의 자기침묵 행동이 각 배우자의 어떤 반응과 관계 만족을 유발하는지 검증하고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계 내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는 모델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활용하였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인 APIM(Kenny, 1996)은 두 사람 간 상호의존성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이원적(dyadic) 관계모델이다(Cook & Kenny, 2005). 대인관계 내 한 사람의 감정, 인지, 행동이 상대방의 감정,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보는데(Kelley et al., 2003) APIM은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Cook & Kenny, 2005). APIM의 중요한 구성요소 두 가지는 자기효과(actor effects),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s)로 자기효과는 자신의 특징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효과이며, 상대방효과는 자신의 특징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이다(Cook & Kenny, 2005). 최근 결혼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APIM 모형을 사용한 연구(강혜숙, 김영희, 2012; 김진아, 2016; 양서연, 최한나, 2020; 이성미, 이영호, 2021; 조서진, 주수산나, 2022)가 증가하고 있다. APIM의 경우 일반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다층모형 통계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중 구조방정식 접근방식은 둘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ook & Kenny, 2005). 본 연구에서는 APIM 모델에 매개변인이 추가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인 APIMeM을 사용하였다(Ledermann et al., 2011). APIMeM을 통해 자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의 관계와 신혼기 부부 간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넷째, 신혼기 부부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신혼기 부부가 대상이며 서베이몽키 설문 플랫폼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 참여에 관해 동의(IRB 승인번호: SGUIRB-A-2212-69) 후 진행하였으며 신혼기 부부가 자주 이용하는 결혼 관련 온라인 카페, 지역사회 커뮤니티 어플 게시판, SNS 등을 활용해 편의 표집으로 연구 대상을 모집하였다. 설문지에 동일한 닉네임+숫자로 구성된 부부 닉네임을 작성하게 하여 부부를 식별하였다. 남편과 아내 모두 설문에 응답하고 부부닉네임이 동일한 경우에만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설문지에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자, 비밀 보장, 설문지 내용, 보상 지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설문을 모두 응답한 376명 참여자 중에서 연구 기준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참여한 157쌍(총 314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33.94세(SD=3.98), 여성이 31.70세(SD=3.38)였다. 결혼년차는 1년 미만 32쌍

(20.4%), 1년 이상~2년 미만 39쌍(24.8%), 2년 이상~3년 미만 27쌍(17.2%), 3년 이상~4년 미만 36쌍(22.9%), 4년 이상~5년 미만 23쌍(14.6%)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없음이 90쌍(57.3%)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57쌍(36.3%), 2명이 10쌍(6.4%)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침묵 척도

Jack과 Dill(1992)이 개발한 자기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양지윤(2006)이 번안하고 이를 김미진(200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미진(2009)은 응답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5점 리커트 척도였던 STSS를 6점 리커드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원척도를 번안·타당화하는 과정에서 1번과 11번 문항은 전체-문항 상관이 0이거나 부적 상관이 나타나 이를 제외하고 총 2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STSS는 외적인 자기지각,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자기침묵행동, 분열된 자기 총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Jack과 Dill(199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 김미진(2009)에서 하위요인 Cronbach's α는 .62-.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89, 외적인 자기지각 .73,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64, 자기침묵행동 .79, 분열된 자기 .80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배우자 지지 척도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장춘미(2001)의 부부지지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수정한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춘미(2001)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박지원, 1985)에 포함된 18개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5개 요인, 22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김시연과 서영석(2010)은 이를 요인분석하고, 하위요인 간 상관이 현저하게 낮은 요인을 제외 후 3개 요인(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 18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김시연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96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정보적지지 .94, 정서적지지 .90, 존중감지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95, 정보적지지 .89, 정서적지지 .90, 존중감지지 .87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usby 등(1995)의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Revised Dyadic Adjustment Scale: RDAS)를 최성일(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RDAS는 Spanier(1976)가 개발한 부부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Busby 등(1995)이 부부일치도, 결혼만족도, 부부응집도 3개 영역, 14문항, 리커트식 6점 척도로 재구성한 것이다. 최성일(2004)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94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는 부부일치도 .91, 결혼만족도 .88, 부부응집도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85, 부부일치도 .77, 결혼만족도 .80, 부부응집도 .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와 AMOS 26.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0를 활용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별 신뢰도를 확인했고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성별 집단에 따라 주요 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AMOS 26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형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APIM 모델에 매개변인이 추가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인 APIMeM을 검증하였다. 경로계수를 확인하여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섯째,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은 7을 넘지 않았기에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배병렬, 2017). 상관관계의 경우 아내 자기침묵과 남편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편 자기침묵은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남편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33, p<.01, r=-.27, p<.01), 아내 자기침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31, p<.01),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31, p<.01, r=-.25, p<.01)을 보였다.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남편 결혼만족도와 유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1. 남편 자기침묵	1					
2.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	-.33**	1				
3. 남편 결혼만족도	-.26**	.75**	1			
4. 아내 자기침묵	.31**	-.23**	-.10	1		
5.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31**	.62**	.61**	-.29**	1	
6. 아내 결혼만족도	-.25**	.50**	.60**	-.23**	.72**	1
평균	93.73	91.54	53.13	89.38	92.39	52.89
표준편차	18.79	14.16	8.14	17.84	13.34	8.08
왜도	.09	-.94	-.49	.19	-1.15	-.89
첨도	.63	.55	.24	-.17	1.58	2.14

주. *p<.05, **p<.01, ***p<.001

의미한 정적 상관(r=.75, p<.01), 아내 자기침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23, p<.01),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66, p<.01, r=.48, p<.01)을 보였다. 남편 결혼만족도는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61, p<.01, r=.60, p<.01)를 보였으나 아내 자기침묵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내 자기침묵은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 및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29, p<.01, r=-.23, p<.01)을 보였다.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아내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72, p<.01)을 보였다.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침묵에서 남성(M=3.20, SD=.66)은 여성(M=3.09, SD=.62)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7, p<.05). 지각된 배우자 지지(t=-.79, p>.05)와 결혼만족도(t=.66, p>.05)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의 경우 CFI, TLI는 .90 이상이고(강현철, 2013) RMSEA는 .05-.08 일 때(Hu & Bentler, 1999)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 모형의 측정변수는 척도별 하위요인 점수를 활용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χ^2(df=145)=278.939(p<.001), TLI=.907, CFI=.929, RMSEA=.077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모형을 수용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의 경우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남편 자기침묵은 .60-.88,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81-.95, 남편 결혼만족도는 .58-.77로 나타났고, 아내 자기침묵은 .41-.95, 아내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80-.93, 아내 결혼만족도는 .47-.78이었고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형 검증

부부의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수 간 직접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먼저,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자기침묵이 자신과 상대방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아내의 자기침묵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력을 보여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β=.214, p<.01).

둘째,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자기침묵은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각각 β=-.343, p<.001, β=-.184, p<.05). 아내의 자기침묵 또한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각각 β=-.251, p<.05, β=-.479, p<.001). 즉,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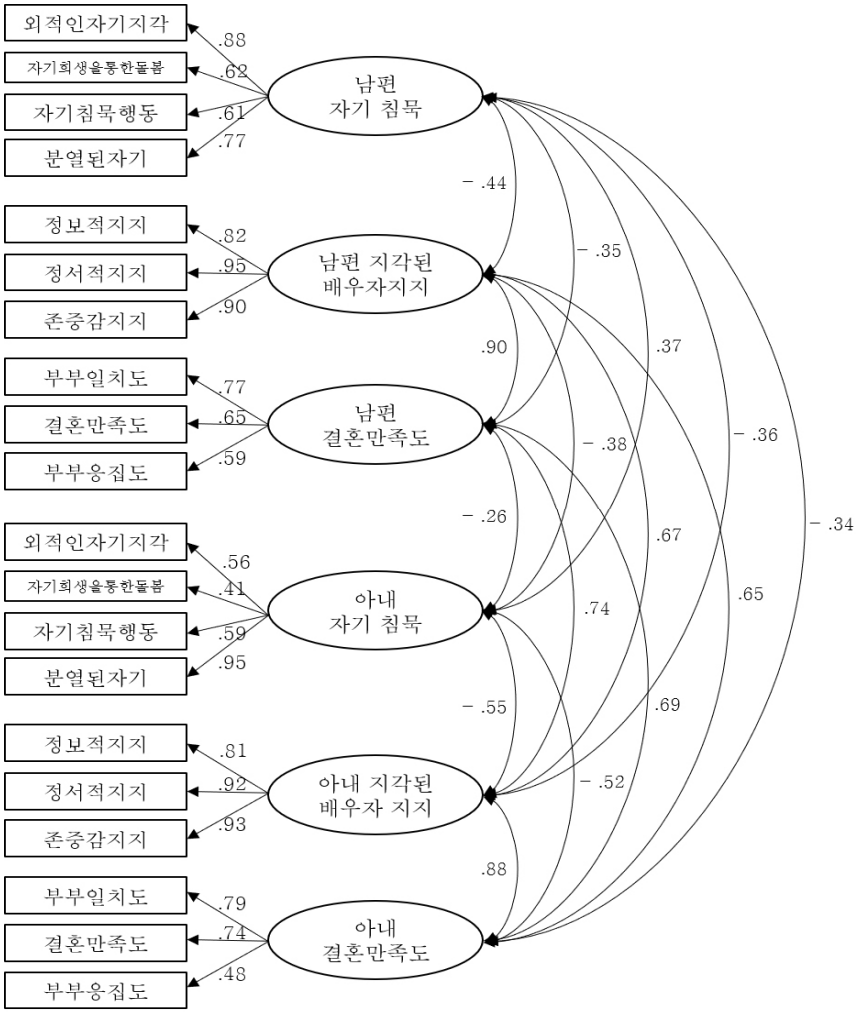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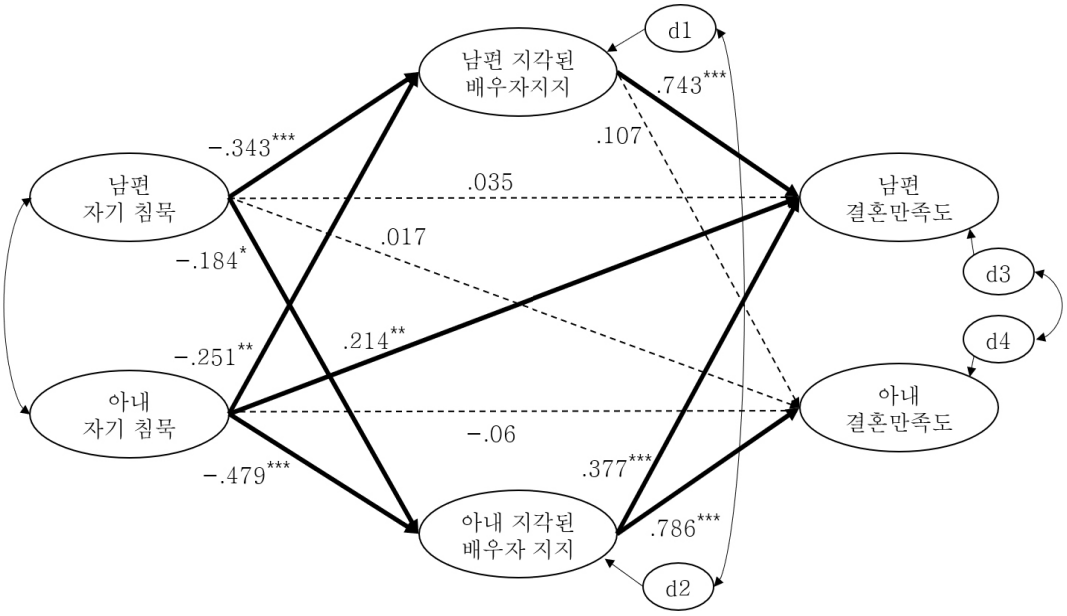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타난 것이다.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낮다고 지각하며, 또한 그들의 배우자들도 지지를 못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743, p<.001) 아내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기효과만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각각 β=.377, p<.001, β=.786, p<.001). 즉, 남편의 경우 자기효과만 유의미하며 아내의 경우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 $^{*}p<.05$, $^{**}p<.01$, $^{***}p<.001$, 실선(유의함), 점선(유의하지 않음)

그림 2. 최종모형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6.0을 활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결혼만족도로 가는 자기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 뿐 아니라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은 아내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또한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였고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둘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자신의 결혼만족도로 가는 자기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했으나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였으며 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아내의 자기침묵 →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의 결혼만족도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의 자기침묵이 아내의 결혼만족도로 가는 상대방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남편

표 2.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남편 자기효과			
남편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178**	-.355	-.038
남편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049*	-.111	-.007
아내 자기효과			
아내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아내 결혼만족	-.193**	-.38	-.101
아내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 결혼만족	-.014	-.064	.014
남편 상대방효과			
남편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 결혼만족	-.024	-.126	.048
남편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아내 결혼만족	-.095*	-.224	-.001
아내 상대방효과			
아내 자기침묵 -> 아내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099**	-.223	-.048
아내 자기침묵 -> 남편 지각된 배우자지지 -> 남편 결혼만족	-0.102*	-.210	-.023

주. *p<.05, **p<.01, ***p<.001

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 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느끼며 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남편의 자기침묵 → 남편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 → 아내의 결혼만족도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의 자기침묵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로 가는 상대방효과 경로를 살펴보면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 뿐 아니라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는 낮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이 아내로부터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는 낮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기 부부 157쌍을 대상으로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역동적인 부부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 APIMeM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 자기침묵과 남편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자기침묵은 자신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침묵이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지영, 2012; 손성은, 박원주, 2021; Uebelacker et al., 2003)를 지지한다. 또한 자기침묵이 부부 내 관계 갈등과 정적 상관이 있고(Whiffen et al., 2007), 연인관계에서 여자의 자기침묵과 본인의 관계만족도 간 부적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Harper & Welsh, 2007)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 상관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진아, 2016; 전민선, 2020; 정문경, 김병석, 2014; Dehle et al., 200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배우자 변인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자기침묵은 상대방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부적 상관을, 그리고 자신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상대방의 결혼만족도 간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상대방 결혼만족도 간의 정적 상관을 확인한 선행연구(Brock & Lawrence,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상관연구에서 남편과 달리 아내의 자기침묵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에서 두 변인 간 상호관계를 검증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없으나 성인 미혼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한 노현주와 신희천(202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침묵과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렇듯 연구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아내의 자기침묵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반복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자기침묵, 지각된 배우자 지지, 결혼만족도의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자기침묵 변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침묵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김지영, 2012; 이은희 2012; Cramer & Thoms, 2003; Duarte & Thompson, 1999)와 일치한다. 김지영(2012)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근거로 성 역할에 따라 남편이 감정을 절제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자기침묵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기침묵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로 가는 경로는 남편과 아내의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또한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그 배우자도 상대방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방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윤미혜, 신희천, 2009), 남편의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진다는 연구(김진아, 2016), 그리고 관계에서 안정감, 사랑, 수용 등에 대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거라 믿는 단절과 거절 도식이 높아지면 자신과 상대방이 지각하는 배우자 지지가 낮다는 연구결과(양서연, 최한나,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배우자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하여 본인의 욕구를 억제할 때 자신은 물론 상대방 또한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며 궁극적으로 관계에서 친밀감을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남편과 아내의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배우자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지각할수록 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효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과도 일치한다(김시연, 서영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 양서연, 최한나 2020; 윤미혜, 신희천, 2009; 전민선, 2020; 정문경, 김병석, 2014).

반면 상대방효과의 경우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내 상대방효과는 유의미하나 남편 상대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상대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시연, 서영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 양서연, 최한나 202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편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무관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의 상대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양서연과 최한나(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반면, 유의미한 상대방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의 결과(김시연, 서영석, 2010; 김진아, 2016; 김효민, 2010)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각하는 정도와 무관하고 본인이 얼마나 남편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의 정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Mitchell 등(2008)과 Yoo 등(2014)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Mitchell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이 여성에게 얼마나 공감적 반응을 제공했는가의 정도가 자신의 친밀감을 예측하였다. 반면, 여성은 남성이 얼마나 자신에게 공감적 반응을 해주었는가가 자신의 친밀감을 예측하였다. 또한 Yoo 등(2014)의 연구에서는 남편은 아내가 더 큰 성적 만족도를 보고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남편의 관계만족도는 높아졌다.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느끼는 성적 만족도와 남편이 아내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고, 자신이 느끼는 성적 만족도와 자신이 남편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아내는 자신이 지각한 정도에만

영향을 받는 반면, 남편은 자신과 아내가 지각한 정도 모두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다섯째,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먼저 자기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2가지의 자기효과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은 아내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이에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또한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지각하였으며 이는 남편의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졌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2가지 자기효과 경로 중 1가지만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다. 즉, 자기침묵이 높을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만족도는 배우자가 얼마나 자신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상대방효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2가지 경로 중 1가지만 유의미하였다. 남편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아내는 남편의 지지가 낮다고 지각하고 이에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로이다. 반면, 아내의 상대방효과의 경우 2가지 경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 본인 모두가 상대방으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각하며 이 2가지 경로가 남편의 결혼만족도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침묵과 유사한 개념인 단절 및 거절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양서연과 최한나(20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종합해보면 남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각하는 정도와 무관하고 남편이나 본인이 자기침묵이 높을 때 본인 스스로가 남편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아내 자기침묵에서 남편 결혼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14, p<.05). 이는 아내의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관계에서 자기침묵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 부적인 상대방효과를 입증한 연구(노현주, 신희천, 2023)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은 관계 내 도덕적 의무로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자기침묵 할 수 있는데(Duarte & Thompson, 1999; Gratch et al., 1995), 이를 부부관계의 원만함을 위해 침묵하는 것으로 남편이 지각하여 자신의 결혼 관계 만족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부 간의 갈등해결전략(Rahim, 1983) 중 양보는 상대방의 바람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인데, 이 전략을 관계 유지를 위한 긍정적 전략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강수경 등, 2018; 연수진, 2013).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아내의 자기침묵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좀 더 복잡하여,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경로와 더불어 정적 영향을 주는 다른 경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단순히 통계적인 역전 현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내의 자기침묵과 남편의 결혼만족도 간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r=-.10, p>.05)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간접효과, 즉 아내 자기침묵에서 남편이 지각한 배우자 지지를 거쳐 남편 결혼

만족도로 가는 경로와 아내 자기침묵에서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 지지를 거쳐 남편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했다(각각 B=-.102, p<.05, B=-0.099, p<.01). 이렇듯 간접효과가 커져서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경우, 실제 두 변인 간 유의미한 결과가 없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자기침묵에서 상대방 결혼만족도로 가는 상대방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한 반복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기 부부의 상호역동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부부 대상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연차를 구분하지 않거나 중년부부 대상인 경우가 많아 신혼기 부부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APIMeM 모델을 활용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함에 따라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관계 내 상호작용에 대해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자기침묵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자기침묵과 유사한 개념들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고 자기효과, 상대방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렇듯 신혼기 부부 관계에서 자기침묵이 높을수록 지각한 배우자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지지하는 것으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부부상담에서 우선 자신의 욕구와 생각, 감정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잘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사는 부부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각,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탐색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셋째, 자기침묵과 결혼만족도 간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의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본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다 보면 본인과 상대방 모두 배우자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며 이는 본인과 상대방의 낮은 결혼만족도로 이어졌다. 이에 상담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표현하게 하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배우자 지지를 잘 지각할 수 있도록 인식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고려했을 때 마음챙김의 전략을 예로 들 수 있다. Barnes 등(2007) 연구에서 마음챙김이 높은 사람은 연인관계에서 갈등 이후 상대방과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했고 정문경과 김병석(2012)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챙김은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한 상대방의 표현을 인식하는데 있어 상담자의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류은영과 천성문(2018) 연구에서도 부부 상담 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공감적이고 온정적인 상담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내에 비해 남편이 여러 경로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기 부부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상담의 초점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남편의 결혼만족을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개입하며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상담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내의 결혼만족을 위해서도 남편과 아내 모두 자기침묵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각하는 부분을 다루기보다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상담에서 아내의 인식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이 많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살거나 학력 수준이 낮은 신혼기 부부에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혼기 부부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남편과 아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쌍 연구로 배우자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 후 상대방에게 참여 요청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에 관계에 심각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부부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실제 부부 관계 내 모습보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선택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가능성도 있겠다. 셋째, 동일 시점에 이루어진 설문 연구로 자기침묵이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보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나 종단연구가 추후 필요하겠다. 예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밝혀진 변인들을 이용하여 신혼기 부부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후검증을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강수경, 김해미, 정미라 (2018). 임신기 부부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를 매개로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355-375.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분석학회, 15(2), 653-668.

강혜숙, 김영희 (2012).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상담학연구, 13(6), 2861-2880.

구성희, 채규만 (2013).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2), 255-268.

김미진 (2009). 여대생의 자기침묵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하 (2019).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김예진, 서수균 (202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외로움의 관계: 자기비난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30(1), 1-20.

김정희 (2019).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4), 57-73.

김지영 (2012). 기혼남녀의 대상관계 수준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김진아 (2016). 정서표현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자기효과 및 상대방 효과: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향순, 김순덕, 구명이 (2014). 기혼여성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59-176.

김효민 (201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국내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노현주, 신희천 (2023).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1), 199-221.

류은영, 천성문 (2018). 단기부부상담모형의 개발과 적용. 재활심리연구, 25(2), 343-370.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방현아, 김혜정 (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73-83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손성은, 박원주 (2021). 거부민감성과 결혼관계 만족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1), 659-674.

신현정, 홍혜영 (2018). 부부의 자기분화와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327-1353.

안향선, 서미아 (2019). 자기-상대방 상호 의존성 모델을 활용한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가족과 가족치료, 27(4), 647-669.

양서연, 최한나 (2020). 단절 및 거절도식과 결혼만족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가족과 상담, 10, 37-54.

양지윤 (2006). 애착 유형, 자존감, 자기 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연수진 (2013).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현주, 권정혜, 최승미, 조현 (2013). 가부장적 원가족 분위기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의사소통 패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16.

오현주, 최승미, 조현, 권정혜 (2012). 회피애착

이 신혼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및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25-546.

윤미혜, 신희천 (2009). 일상사건의 공유를 통한 부부의 친밀감 발달과정: 지각된 배우자 반응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7-32.

윤인지 (2016). 기혼남녀의 애착안정성, 자기개방, 배우자 지지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미, 이영호 (2021).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 만족도의 관계에서 배우자 평가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1), 55-81.

이연정, 최은실 (2022). 중년기 부부의 성인애착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가정과삶의질연구, 40(2), 71-89.

이은희 (2012). 자기침묵과 정서표현양가성이 결혼만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

이지은, 윤호균 (2007). 기혼여성의 마음챙김과 부부의사소통패턴,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31-345.

임하영, 박정윤, 조유현 (2014). 신혼기 부부의 부부관계신념 인지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4), 947-973.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민선 (2020).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역할과 가사분담 만족도의 조절역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4), 1293-1308.

정문경, 김병석 (2012). 마인풀니스(mindfulness)가 지각된 배우자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6), 2589-2606.

정문경, 김병석 (2014). 마인드풀니스, 정서조절, 지각된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5(1), 499-518.

정민선, 최연실 (2023). 신혼기 부부의 차이 수용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행동 부부치료 (IBCT) 의 관점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31(1), 59-84.

조서진, 주수산나 (2022). 중년부부의 해결중심 사고가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30(3), 357-379.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 (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보건사회연구, 37(2), 126-149.

최성일 (2004).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고황논집, 35, 97-114.

통계청 (2018). 인구동향조사: 이혼사유별 이혼. https://kosis.kr

통계청 (2023). 2022년 신혼부부 통계. http://www.kostat.go.kr

통계청 (2023).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http://www.kostat.go.kr

한영애, 양혜정 (2020). 중년부부의 마음챙김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모형(APIM)의 적용. 가족과 가족치료, 28(3), 405-425.

홍지희, 김보영 (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349-1374.

Barnes, S., Brown, K. W., Krusemark, E., Campbell, W. K., & Rogge, R. D. (2007). The role of mindfulness i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sponses to relationship stres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3*(4), 482-500.

Besser, A., Flett, G. L., & Davis, R. A. (2003). Self-criticism, dependency, silencing the self, and loneliness: A test of a mediational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8), 1735-1752.

Bowker, J. C., Richard, C. L., Stotsky, M. V., Weingarten, J. P., & Shafik, M. I. (2023). Understanding shyness and psychosocial difficulties during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friend shyness and self-silenc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9*, 112209.

Brock, R. L., & Lawrence, E. (200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tress spillover in marriage: Does spousal support adequacy buffer the eff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11-20.

Busby, D. M., Christensen, C., Crane, R. D.,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308.

Carrillo, B. (2022). *Self-Silenc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s it Related to Worse Relationship Conflict Outcom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Cramer, K, M., & Thoms, N. (2003). Factor structure of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in women and 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3), 525-535.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The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173-194.. Boston, MA: Springer US.

Dehle, C., Larsen, D., & Landers, J. E. (2001). Social support in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4), 307-324.

Duarte, L. M., & Thompson, J. M. (1999). Sex differences in self-silencing. *Psychological reports, 85*(1), 145-161.

Gratch, L. V., Bassett, M. E., & Attra, S. L. (1995).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ethnicity to self silencing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509-515.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Harper, M. S., & Welsh, D. P. (2007). Keeping quiet: Self-silencing and its association with relational and individual functioning among adolescent romantic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1), 99-116.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Joiner, T., Coyne, J. C., & Blalock, J. (1999). On the interpersonal nature of depression: Overview and synthesis. In T. Joiner & J. C. Coy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Advances in interpersonal approaches,* (3 – 1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elley, H. H., Holmes, J. G., Kerr, N. L., Reis, H. T., Rusbult, C. E., & Van Lange, P. A. M. (2003). An atlas of interpersonal situ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3*(2), 279-294.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Mitchell, A. E., Castellani, A. M., Herrington, R. L., Joseph, J. I., Doss, B. D., & Snyder, D. K. (2008). Predictors of intimacy in couples' discussions of relationship injuries: An observatio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21-29.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219-230.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28.

Thomas, K. K., & Bowker, J. C. (2015). Rejection sensitivity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Do friendship self-silencing and parent support matt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3), 608-616.

Uebelacker, L. A., Courtnage, E. S., & Whisman, M. A. (2003).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Perceptions of marital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6), 757-769.

Ussher, J. M., & Perz, J. (2010). Gender differences in self-silenc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informal cancer car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2), 228-242.

Wethington, E., & Kesse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1), 78-88.

Whiffen, V. E., Foot, M. L., & Thompson, J. M. (2007). Self-silencing mediates the link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dep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6), 993-1006.

Yoo, H., Bartle-Haring, S., Day, R. D., & Gangamma, R. (2014). Couple communication,

emotional and sexual intima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0*(4), 275-293.

원 고 접 수 일 : 2024. 03.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5. 13
게 재 결 정 일 : 2024. 06. 13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3, 1197-1219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Silencing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Newlywed Couples: Actor and Partner Effects

Yena Kang Sogang University / Master's Degree

Jaehong Jang Sogang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thways from self-silencing to marital satisfaction in newlywed couple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on 157 newlywed Korean coup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self-silencing on perceived marital support were negatively significant for both husbands and wives. Second, the actor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support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significant for both spouses, while the partner effects were positively significant only for wives. Third, both the husband's and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husband's actor effect and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only the wife's actor effect. Fourth,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husband's partner effect and both the husband's and the wife's perceived marital support mediated the wife's partner effect.

Key words : newlywed couples, self-silencing,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marital support,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APIMeM), actor effect, partner effect